

격 려 사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수행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시고 계신 스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대법석의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이웃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도 종단을 대표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를 위해 우리 불교계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
불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온
한국불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단체로
치부하며, 적은 예산으로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국가보조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수행자의 위의를 스스로 깎아 내리지는 않았는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불법홍포라는 종교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편하게 불사하고 편하게 생활해 온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입니다. 2천만명에 달하는 불교인구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타 종교에 비해 무척이나 초라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생활의 터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안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불교는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홀대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

**우리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만명의 불자가 운집하여
종교편향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봉행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는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노골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신교인들이 동화사, 봉은사를 비롯해 사찰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사찰 땅밟기’ 동영상에 인터넷에 유포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는 목사와 장로 등 개신교인들이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에까지 난입해 불교를 비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밟기 행위는 국내를 넘어 미얀마 등 불교국가에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

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自省)합시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쇄신(刷新)합니다. 그리고, 결사(結社)의 정신으로 씬 없이 정진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에는 백련결사와 정혜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세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봉암사결사로 한국 승가의 혁신과 수행풍토 확립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봉암사 결사 규약과 같이 우리도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지침은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곳 부산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불자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민족문화 수호활동과 자성과
쇄신 결사의 핵심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 부산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결사의 정신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대한 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그 실천의 중심에 설 것을 기대합니다. 부산 연합회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 온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과 회장 수불스님의 원력과 신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가 모여 ‘우리’가 되면 한국불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